



세계랭킹 1위를 이긴 기쁨.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16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남자 단식 결승에서 라파엘 나달(스페인)에 세트스코어 2-0 승리를 거두자 코트에 누워 환호하고 있다.

로마(이탈리아) | 신화연합뉴스

김상현이 돌아왔다...KIA 다득점 콜!

무릎팍도사 | 야구 랭킹 17주차

김현수 부활...두산 “한화쯤이야”
주축타자들 펄펄 SK도 불꽃쇼 쿵!

지금까지 평범했던 야니, 평균 이하였던 선수 가 갑자기 팀내 최고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 신체적 능력에 대한 비중이 높은 농구 같은 종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야구에서는 이런 성공스토리가 자주 탄생해. 2009년 KIA 김상현이 그랬고, 올해는 LG 박현준이 있잖아. 2009년 입단해 2년 간 2승 4패 방어율 6.39를 기록했던 그저 그런 유망주가 2011년 LG의 에이스로 거듭나며 다승 1위를 질주하고 있어. 매해 골같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펼쳐지는 그라운드에, 그래서 야구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든 5월 프로야구는 과연 LG가 오랜 암흑기를 벗어나 상위권을 계속 질주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

LG는 최근 7경기에서 5승 2패를 기록했어. 하위권 팀과 만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분명 최근 몇 년 사이의 LG와 다른 모습이야. 이대로 LG가 쑥 상승세를 유



김상현

지할 수 있을까? 주중 KIA와 3연전인 그 첫 관문인 것 같아.

KIA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졌지만 강력한 선발과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으로 여전히 우승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특히 주중 3연전은 에이스 윤석민부터, 전통적으로 LG에 강한 좌완 양현종과 트레비스가 마운드

야구토토 랭킹 17주차 가이드

구장	팀명	순위	시즌전적	득점	실점	득점
잠실	두산	3위	16승 1무 16패	4.15	4.39	8.00
	한화	8위	12승 1무 23패	3.47	5.36	4.00
문학	SK	1위	23승 10패	4.64	3.42	7.50
	롯데	6위	16승 2무 17패	4.57	4.83	7.00
대구	삼성	공동4위	17승 18패	4.17	3.74	4.00
	넥센	7위	15승 20패	3.83	4.46	4.00
광주	KIA	공동4위	17승 18패	4.66	4.31	4.67
	LG	2위	21승 15패	5.39	4.28	2.00

* 발매 마감 : 2011년 5월 17일 (화) 오후 6시 20분 * 게임 방식 : 1일 4경기 다득점 3게임 맞히기 (스트레이트: 순서대로, 박스: 순서무관)

에 오를 차례야. LG 역시 1~3선발이 등판하는 순서. 진급 승부에서 LG가 또 다시 좋은 성적을 올린다면 여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찬스야. 그러나 첫 경기는 쉽지 않을 거야. 최근 윤석민의 공을 보면 무슨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 같아. 빈틈이 없어. LG가 많은 득점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반대로 KIA는 김상현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김주형도 드디어 재능을 꽃피우고 있어. 불펜이 불안한 LG로서는 자칫 선발이 빨리 내려갈 경우 대량 실점을 허용할 수 있어. 일단 KIA는 다득점 후보야.

잠실에서 한화를 기다리는 두산도 주목해야 해. 올시즌 한화를 상대로 평균 8점이나 올렸잖아. 팀 분위기가 아직 어수선하지만 이중육이 살아나면서 활기

1000원으로 베팅하기

베팅방식	금액	팀
스트레이트	700원	①SK ②두산 ③KIA
박스	300원	두산 KIA SK

를 붙여넣고 있고 김현수, 김동주 등 중심타선의 슬럼프도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다음은 문학에서 롯데를 상대하는 SK야. 롯데는 사직 KIA와 3연전에서 너무 많은 힘을 뺐어. 1~3선발이 다 등판했고 불펜도 총동원했지. 투수들도 SK에게 올해 평균 7.5점을 내주며 약한 모습이야. 정근우, 박재상, 최동수, 박정권, 정상호까지 SK 주축 타자들의 최근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편이야.

광화문 속집게

야구토토 스페셜+14회차 가이드

경기 번호	날짜	홈팀	원정팀	득점평균	실점평균	홈/원정	실점평균	승패	득점평균
1	5.17 (화) 18:30	두산	한화	4.15	4.39	4.43	3.50	2승	8.00
		SK	롯데	4.64	3.42	4.06	3.38	1승1패	7.50
2	5.17 (화) 18:30	SK	롯데	4.64	3.42	4.06	3.38	1승1패	7.50
		KIA	LG	4.66	4.31	4.53	4.47	2승1패	4.67
3	5.17 (화) 18:30	KIA	LG	4.66	4.31	4.53	4.47	2승1패	4.67
		LG	두산	5.39	4.28	6.50	4.15	1승2패	2.00

* 게임방식: 프로야구 2경기(1,2번) 4게임 및 3경기 6게임 최종 득점대 맞히기(연장 포함) * 표기방식: (0~1, 2~3, 4~5, 6~7, 8~9, 10+)

‘5월의 기부 온정’ 500만원 훌쩍

행복나눔 캠페인 호응 뜨거워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가 1일부터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행복나눔 5월 캠페인’이 16일 현재 모금액 530만8440원을 기록하며 스포츠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나눔 캠페인은 매달 1000만원을 목표로 스포츠토토 팬들의 기부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벤트다. 5월에 적립된 기부금은 ‘2011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만 8세 이상의 모든 지적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스페셜올림픽은 지적발달장애인의 신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적 사회구성원

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국제대회다.

이번 대회는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며 한국선수단은 하계 21개 공식종목 중 육상,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9개 종목에 참가한다. 스포츠토토는 2006년부터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비영리국제스포츠기구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www.sokorea.or.kr)를 공식후원하고 있다.

행복나눔 캠페인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조강 머신(1명), 이어폰(2명), 배드민턴 라켓(5명), 농구공(20명), 줄넘기(25명), 영화매매권(1인2매·75명) 등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참여방법은 토토와 프로토를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뒤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또는 베티맨(www.betman.co.kr) 웹사이트에서 투표권 일련번호와 판매점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투표권당 30원의 행복기부금이 적립된다.

여자축구기 이름답디다

2011 WK리그
스포츠동아가 공식 후원합니다

9연승! 고양 대교 누가 막으랴

KSPO에 6-0 완승...선두 질주
현대제철, 서울시청 잡고 6승

‘여자 실업축구 최강’ 고양 대교가 전승행진을 9경기로 이어갔다.

고양 대교는 16일 함안공설운동장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2011 WK리그 9라운드에서 한 수 아래의 ‘신생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을 6-0으로 꺾어웃 시키며 9전 전승,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차연희와 박희경의 전반 연속 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고양 대교는 후반 30분 이장미, 35분 송유나의 릴레이 포로 상대의 의지를 꺾었다. 종료 직전에도 강수지가 2골을 몰아쳐 6골 차 대승을 챙겼다.

2위 현대제철은 서울시청을 고양에서 2-0으로 꺾고, 시즌 6승(2무1패)째를 올려 중전 순위를 유지했

다. 승점3을 추가해 고양 대교와의 승점차를 유지했다는데 만족해야 했다. 박지영과 전가율이 전반 38분과 후반 31분 각각 1골씩 기록했다.

수원FMC는 충남 일화전에서 난타전 끝에 3-2 승리를 거뒀다.

전반 21분 조아라, 29분 까리나의 득점으로 앞서 나간 수원FMC는 후반 7분 이현영에 한 골을 내줬으나 5분 뒤 다시 까리나가 추가 골을 터뜨려 점수차를 벌렸다. 충남 일화는 추가시간 2분쯤 최수진이 골을 만들 어냈지만 승부를 바꿀 놓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부산 상무는 보은에서 스포츠토토를 2-1로 눌러 6승3패(승점 18)가 됐다. 부산 상무는 수원FMC(5승 3무1패)와 동률이 됐지만 골 득실차에 뒤져 4위에 머물렀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시카고 불스의 타지 김승(위)이 16일(한국시간)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2010~2011 미국 프로농구(NBA) 동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결승 마이애미 히트와의 홈 1차전에서 화려한 덩크슛을 터뜨리고 있다. 시카고는 마이애미의 주포 르브론 제임스를 15점으로 꺾고 103-82로 대승했다.

시카고 | AP연합뉴스

‘갈색 폭격기’ 신진식, 홍익대 감독 된다

은퇴후 지도자 준비...신치용 감독 추천

‘갈색폭격기’ 신진식(36·사진)이 홍익대 사령탑을 맡는다.

신진식은 16일 홍익대 감독으로 공식 취임했다. 은사 신치용 삼성화재 감독이 적극 추천했다. 신치용 감독은 신진식이 선수 은퇴 후 호주에서 유학할 때도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 신치용 감독은 “감독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었다. 앞으로도 적극 도와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리 남성고와 성균관대를 거쳐 1997년 삼



성화재에 입단한 신진식은 김세진과 막강 좌우 쌍포를 이뤄 삼성화재 전성기대를 연 주역. 프로 원년인 2005년까지 겨울리그 9연패와 77연승 신화를 창조했다. 2007년 은퇴 후 호주에서 2년 간 어학연수를 했고 작년 8월 당시 신치용 대표팀 감독을 보좌해 트레이너로 차근차근 지도자 준비를 해왔다. 2010~2011시즌 프로배구 V리그에서는 KBS N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윤택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완지루 추락사

2008베이징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사무엘 카마우 완지루(케냐)가 16일(한국시간) 케냐 리프트벨리 자택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AP통신은 이남 완지루가 집에서 사고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완지루는 베이징에서 2시간6분32초로 우승했고 2009년 런던마라톤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정상을 지켰었다.

태권도 이대훈, 男 63kg급 첫 세계랭킹 톱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용인대)이 처음으로

남자 63kg급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이대훈은 세계태권도연맹(WTF)이 16일 발표한 5월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107.50점을 얻어 지난달까지 1위를 지켰던 레자 나데리안(이란·105.57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男농구대표팀, 동아시아선수권 대비 훈련

남자농구대표팀이 16일 태릉선수촌에 모여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대비 훈련을 시작했다. 허재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대표팀은 6월 10일부터 6일간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